The publishing aspect of modern poetry collections during the colonial period

Eom, Dong-seob
Changhyun High School, principal
eumjmt@hanmail.net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organize poetry published from 1921 to June 1950. In a previous study, Professor Ha Dong-ho compiled 374 kinds of poetry. This work includes some of the poems written in classical or foreign languages, and there are some missing poetry collections. This article is based on this, and unlike previous studies, we focused on the major publishers that published modern poetry.

Method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organize poetry collections published from 1921 to June 1950. To this end, except for classical poetry collections or poetry collections written in foreign languages covered in previous studies,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more than 400 kinds of poetry collections, focusing on major publishers that published modern poetry during the colonial period.

Conclusions Through this article, we looked at the publishers that were in charge of publishing modern poetry, the publishers that published the most books of poetry in Japanese colonial era, the publishing patterns of literary poetry, poetry collections published by poet-run publishers, poetry collections published by literary magazines, and major self-authored poetry collections.

Keywords Japanese colonial era published poetry, modern poetry, Japanese colonial era publishing house, literary book publishing house, publishing house run by poet, poetry collection published by literary magazine publishing house, self-funded publishing house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4.10.312.004
Received: Sep. 20. 2024 ; Reviewed: Oct. 10. 2024 ; Accepted: Oct. 15. 2024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www.kci.go.kr

International Journal of K-Culture vol. 5. October 2024. pp.75~88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4.10.312.004

식민지시기 근대 시집의 출판 양상*

엄동섭

목 차

1. 근대 시집 출판의 남상, 광익서관과 회동서관
2. 시집 출판 1,2위 한성도서주식회사와 박문서관
3. 문고본 시집들
4. 시인이 운영한 출판사에서 발행된 시집들
5. 문예지 출판사에서 발행된 시집들
6. 주요 자가본 시집들
7. 결론

하동호 선생은 『오뇌의 무도』가 간행된 1921년부터 1950년 6월까지 출판된 시집 374종을 정리한 바 있다.[1] 고전시가집이나 외국어 표기 시집 등이 더러 포함되어 있고, 몇몇 누락된 시집이 있기는 하지만 실물에 기초해 근대 시집의 총량에 다가선 서지 정리는 아직까지 유일한 형편이다. 이 책의 말미에 수록된 근대 시집 목록도 하 선생의 작업에 약간의 손을 보았을 뿐이다.

400여 종의 시집을 하나씩 살피는 일은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 식민지시기 근대 시집을 발행한 주요 출판사의 면면을 중심으로 그 출판 양상을 성글게나마 살펴볼 요량이다. 단,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고전시가집이나 한시 번역서, 외국어로 표기된 시집 등은 논외로 한다.

---

* 이 글은 학회의 요청으로, 단행본 『한국 근현대 시집 100년』에 해제로 쓴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하동호. (1982). 한국근대시집총림서지정리. 한국학보, 28. 145-174.

www.kci.go.kr

1. 근대 시집 출판의 남상, 광익서관과 회동서관

근대 시집의 첫 출판은 고경상의 광익서관에서 이루어졌다. 광익서관은 1917년부터 1923년 무렵까지 근대 번역문학 출판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다. 고경상은 광익서관을 통해 『태서문예신보』(1918), 『삼광』(1919), 『여자시론』(1920) 등의 보급을 책임지며 김억, 홍난파 등 일본 유학생 필진과의 인연을 쌓아갔다. 신문관의 판권을 인수해 『무정』 재판(1920)을 발행한 이후, 고경상은 김억이 동인으로 참여한 『폐허』(1920)의 발행인을 맡는 한편 김억의 『오뇌의 무도』 초간본(1921)을 펴냈다. 뿐만 아니라 홍난파의 번역소설집 『첫사랑』(1921)과 『어대로 가나』(1921), 오천석의 번역동화집 『금방울』(1921) 등을 연달아 출간했다. 이처럼 근대 최초의 번역시집인 『오뇌의 무도』가 번역문학 전문 출판사에서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광익서관 몰락 이후 고경상은 1933년 삼문사를 설립하여 김유정의 『동백꽃』(1938), 이기영의 『신개지』(1938), 이무영의 『명일의 포도』(1938), 이태준의 『화관』(1938), 이효석의 『성화』(1939), 김말봉의 『밀림』(1942) 등 '조선문학전집'을 간행하여 재기하였다. 삼문사에서 발행된 시집으로는 이상필의 『잔몽』(1937)이 있다.

한편 고경상의 형 고유상이 운영한 회동서관에서는 김억의 번역시집 『원정』(1924), 한용운의 『님의 침묵』 초간본(1926)이 발행되었다. 또한 고유상은 '경성서적업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했는데, 조합의 영업부가 독립해 설립한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는 근대 최초의 창작시집인 김억의 『해파리의 노래』(1923), 김억의 번역시집 『오뇌의 무도』 재간본(1923), 박종화의 『흑방비곡』(1924)이 간행된 바 있다.

2. 시집 출판 1,2위 한성도서주식회사와 박문서관

일제강점기에 시집을 가장 많이 발행한 출판사는 한성도서주식회사와 박문서관이다. 한성도서는 창작시집 19종을, 박문서관은 창작시집 10종과 번역시집 1종 등 총 11종을 펴냈다.

장도빈이 중심이 되어 1920년 설립한 한성도서주식회사는 애초 일간신문의 발간을 계획했다가 도서 출판과 잡지 발행으로 방향을 돌려 출판업, 인쇄업, 서적 판매업 전반에서 일가를 이뤘다. 초창기에는 『나의 참회』(1921), 『데모쓰테네쓰』(1921), 『성길사한』(1921), 『윌슨』(1921), 『짠다크』(1921), 『가리발디』(1923), 『해부인』(1923) 등의 번역서에 주력하

www.kci.go.kr

다가 1920년대 중반부터 근대문학 출판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한성도서주식회사에 출판된 창작시집에는 김억의 『금모래』(1924), 김동환의 『국경의 밤』(1925), 김명순의 『생명의 과실』(1925), 김억의 『안서시집』(1929), 이진언의 『행정의 우수』(1932), 이은상의 『노산시조집』(1932), 김성실의 『찬송의 약동』(1932), 김태오의 『설강동요집』(1933), 장정심의 『주의 승리』(1933), 장정심의 『금선』(1934), 김희규의 『님의 심금』(1935), 이서해의 『이국녀』(1937), 이찬의 『분향』(1938), 임학수의 『후조』(1939), 한죽송의 『방아 찧는 처녀』(1939), 윤곤강의 『동물시집』(1939), 심이랑의 『분이』(1940), 윤곤강의 『빙화』(1940), 차원흥의 『전원』(1944) 등이 있다.

그리고 1930년대에 들어서는 이광수의 『흙』(1933), 이태준의 『달밤』(1934), 김동인의 『감자』(1935), 이기영의 『고향』(1936), 심훈의 『상록수』(1936), 이태준의 『가마귀』(1937) 등 많은 명작 소설집도 간행하였다.

노익형이 1907년 설립한 박문서관은 『월남망국사』(1907), 『이태리건국삼걸전』(1908), 『국어문전음학』(1908), 『국어문법』(1910) 등 주시경의 번역서와 저서로부터 출발했다. 1917년 이후 신구소설류와 번역서 출판에 참여하여 사세가 신장되었고, 1931년 대동인쇄주식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출판업, 인쇄업, 서적 판매업 분야에서 당대 최고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특히 1920년대 중반 이후 근대소설 출판에 주력하여 염상섭의 『견우화』(1924), 현진건의 『지새는 안개』(1925), 이광수의 『마의태자』(1928), 박태원의 『천변풍경』(1938), 채만식의 『탁류』(1939), 이효석의 『벽공무한』(1941), 이태준의 『돌다리』(1943) 등 걸출한 소설집을 선보였다.

박문서관에서는 김기진의 번역시집 『애련모사』(1924)를 위시하여 조선동요연구협회 편집의 『조선동요선집』(1929), 윤석중의 『윤석중동요선』(1939), 이하윤 편집의 『현대서정시선』(1939), 김소월의 『소월시초』(1939), 이광수의 『춘원시가집』(1940), 박팔양의 『여수시초』(1940), 이찬의 『망양』(1940), 윤석중의 『어깨동무』(1940), 강소천의 『호박꽃초롱』(1941), 김억의 『안서시초』(1941) 등의 창작시집이 간행되었다. 이중 『윤석중동요선』, 『현대서정시선』, 『소월시초』, 『여수시초』, 『안서시초』 등은 박문문고 시리즈로 발간되었는데, 박문서관의 시집 출판은 1920년대부터 활발했던 소설집 출판과는 달리 박문문고 간행 시기에 집중되는 양상을 띤다.[2]

---

2 문학사상사편. (1975). 초간희귀 한국현대시 원본전집 1-50. 서울: 문학사상사.

www.kci.go.kr

3. 문고본 시집들

일제강점기 문고본 출판의 쌍벽을 이룬 출판사는 박문서관과 학예사이다. 박문서관에서 1939년부터 1943년까지 18책을 펴냈고, 해방 후 박문출판사에서 4책을 더 내어 박문문고의 총 권수는 22책이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윤석중동요선』, 『현대서정시선』, 『소월시초』, 『여수시초』, 『안서시초』 등이 박문문고의 시집들이다.

학예사는 임화와 김태준이 주축이 되고, 최남주가 출자하여 1938년 설립된 문학 및 학술 전문 출판사이다. 학예사에서는 1939년부터 1941년까지 20책의 조선문고를 발간했다. 조선문고 중 창작시집에는 임화 편집의 『현대조선시인선집』(1939)과 김기림의 『태양의 풍속』(1939)이 있고, 번역시집에는 임학수의 『현대영시선』(1939)이 있다.

이들 중에서 조선문고의 『태양의 풍속』과 박문문고의 『여수시초』는 문고본 이외에 4·6판의 양장본(호화본)이 따로 발행되어 이채를 띤다. 두 시집 모두 문고본이 먼저 출간되고, 양장본이 그 뒤를 이었다. 『태양의 풍속』은 문고본이 1939년 9월 6일에, 양장본이 1939년 9월 25일에 출간되었고, 『여수시초』는 문고본이 1940년 3월 30일에, 양장본이 1940년 6월 15일에 100부 한정판으로 간행되었다.

이 밖에 영창서관에서도 영창문고를 기획했는데 실제로 간행된 것은 김시홍의 번역시집 『하이네시집』(1940)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1926년 초간된 것을 문고본 형태로 재간했을 뿐이다. 좁은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식민지시기에 출판된 문고본 시집은 박문문고 5종, 조선문고 3종, 영창문고 1종 등 9종에 그친다.[3]

4. 시인이 운영한 출판사에서 발행된 시집들

시인이 출판사를 운영하며 시집을 출간한 사례는 김억의 매문사와 신문학사, 황석우의 조선시단사, 양주동의 문예공론사, 김동환의 삼천리사, 박용철의 시문학사, 오일도(오희병)의 시원사, 오장환의 남만서방 등을 꼽을 수 있다.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국경의 밤』(1925) 초간본과 재간본의 판권지에는 김억이 편집 겸 발행자로 표기되어 있다. 이처럼 그는 1925년 무렵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편집인으

3 하동호. (1987). 근대서지고유총. 서울: 탑출판사.

www.kci.go.kr

로 근무했는데, 이와는 별도로 매문사와 신문학사 등 2곳의 출판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매문사에서는 김억의 『봄의 노래』(1925)와 김소월의 『진달래꽃』(1925) 등 창작시집 2종과 문예잡지 『가면』이 발행되었다. 특히 『진달래꽃』은 동시대의 이본이 3종이나 있어서 출판 경위 및 이본 간의 판차 등의 문제가 근대문학 서지 연구의 난제로 남아 있다. 김동환의 창작시집 『승천하는 청춘』(1925)을 펴낸 신문학사의 주소는 '경성부 연건동 121번지'로 매문사와 동일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둘 때 신문학사도 김억이 운영했던 출판사였을 것이다. 한편 『승천하는 청춘』(신문학사)의 발행일은 1925년 12월 25일이며, 『진달래꽃』(매문사)의 발행일은 1925년 12월 26일이다. 단 하루 차이로 2책의 시집이 간행된 점이 퍽 놀랍다. 『국경의 밤』을 편집하여 발행하고, 『봄의 노래』, 『진달래꽃』, 『승천하는 청춘』 및 『가면』을 간행한 1925년은 출판인 김억의 전성기였던 해였다.

근대 최초의 시 동인지 『장미촌』(1921)을 주재한 바 있는 황석우는 조선시단사를 설립하여 1928년 시 잡지 『조선시단』을 펴냈다. 『조선시단』은 1928년 창간호와 제2·3호합본, 1929년 제4호와 제5호, 1930년 제6호가 발행되었으며, 1934년 제8호가 속간된 바 있다. 이 중 특대호인 제5호는 『청년시인백인집』으로 꾸며졌다. 엄밀히 말해서 『청년시인백인집』은 시집이 아닌 시 잡지의 별칭이지만, 잡지 전체가 사화집으로 꾸며졌다는 점에서 시집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 등재된 필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중앙의 기성 시인보다는 '청년시인'이란 제목처럼 지방 시인이나 시인 지망생들이 주로 선별되었다. 조선시단사에서 출판된 창작시집으로는 황석우의 『자연송』(1929)이 있다.

『금성』(1923) 동인으로 출발한 양주동은 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29년 5월 『문예공론』을 발행하여 시작과 평론 활동을 의욕적으로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문예공론』은 당대의 시국 상황과 이분화된 문단의 대립 속에서 1930년 1월 제3호로 종간되고 만다. 양주동도 10년 동안의 시작 활동을 마감하는 『조선의 맥박』(1932)을 간행한 후, 문학청년에서 고전문학 연구자로 변모하게 된다.

『국경의 밤』(1925)과 『승천하는 청춘』(1925)으로 성가를 올린 김동환이 1929년 7월호부터 1942년 1월호까지 발행한 『삼천리』는 식민지시기 가장 성공한 대중잡지로 평가된다. 하지만 1938년 5월호 이후 편집 방향이 총독정치에 동조하는 쪽으로 변화된 점이나 1942년 5월호부터는 아예 잡지명을 『대동아』로 바꾼 점 등 그 친일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삼천리사에서는 이광수, 주요한, 김동환의 합동 창작시집 『시가집』(1929)이, 대동아사에서는 김동환의 창작시집 『해당화』(1942)이 각각 출판되었다.

박용철은 '민족 언어의 완성'이란 시학을 실현하기 위해 시문학사를 운영하며 『시문학』

www.kci.go.kr

제1호~제3호(1930~1931), 『문예월간』 제1호~제4호(1931~1932), 『문학』 제1호~제3호(1933~1934) 등 10권의 문예지를 발행했다. 또한 시문학파 동인들인 이하윤의 번역시집 『실향의 화원』(1933) 및 정지용과 김영랑의 창작시집 『정지용시집』(1935)과 『영랑시집』(1935)을 출판했다. 그러나 정작 박용철은 자신의 시집 간행을 고사했기 때문에 그의 시집은 생전에 나오지 못하고, 작고 후 미망인에 의해 『박용철전집 제1권 시집』(1939)과 『박용철전집 제2권 평론집』(1940)으로 묶여졌다. 『박용철전집』은 근대문학 최초의 개인 전집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들 전집의 총판매소는 동광당서점이었는데, 동광당서점에서 발행된 유일한 시집은 임화의 『현해탄』(1938)이다.

박용철이 주재한 『시문학』, 『문예월간』, 『문학』 등이 모두 폐간된 이후, 시 잡지의 명맥을 이은 아는 『시원』 제1호~제5호(1935)를 간행한 오일도이다. 시원사에서는 창작시집인 오일도 편집의 『을해명시선집』(1936)과 조동진의 『세림시집』(1938)이 출판되었다. 『세림시집』의 저자 조동진은 조지훈(조동탁)의 맏형으로 1937년 급서했는데, 마침 동향(경북 영양) 선배인 오일도 밑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던 조지훈의 주선에 의해 시원사에서 유고시집 『세림시집』이 나오게 된 것이다.

오장환은 1938년부터 남만서방을 운영하며 완성도가 빼어난 창작시집 3책을 출판했다. 오장환의 『헌사』(1939), 김광균의 『와사등』(1939), 서정주의 『화사집』(1941)이 그것인데, 이들 시집은 문학적 완성도는 물론 호화로운 출판물로도 손꼽힌다. 특이한 사항은 발행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헌사』는 남만서방, 『와사등』은 남만서점, 『화사집』은 남만서고 등으로 발행소명을 약간씩 달리한 점이다. 또한 『헌사』를 80부 한정으로, 『화사집』을 100부 한정으로 찍으면서도 이들 한정본과는 물성이 다른 보급본을 따로 펴내기도 했다. 이 둘에 견준다면 『와사등』도 한정본으로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4]

5. 문예지 출판사에서 발행된 시집들

시인 이외의 문화인이 문예지를 주재하면서 간간이 시집을 출판한 사례로는 방인근의 조선문단사, 이무영의 조선문학사, 민태규의 낭만사, 홍순렬의 풍림사, 이인영의 시인춘추사, 김정기의 맥사, 구본웅의 청색지사, 김연만의 문장사, 최재서의 인문사 등을 들 수 있다.

---

4 하동호. (1981). 한국근대문학의 서지연구. 서울: 깊은샘.

www.kci.go.kr

『조선문단』은 방인근이 주재하여 1924년 10월 창간호부터 1926년 6월호까지 통권 17호가 발행되었고, 남진우가 그 뒤를 이어받아 1927년 1월호부터 그해 3월호까지 통권 3호가 세상에 나왔다. 그 뒤 이성로가 1935년 2월호부터 1936년 1월호까지 통권 6호를 간행하여 통권 호수는 26호가 된다. 주요한의 창작시집 『아름다운 새벽』(1924)은 방인근이 주재하던 조선문학사에서 출판되었으며, 『조선문단』의 마지막 편집인인 이성로도 이학인이란 필명으로 창작시집 『무궁화』(1924)를 희망사에서 간행한 바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1933년 이무영에 의해 창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문학』은 1939년 7월까지 20호가 간행되었다. 조선문단사에서는 창작시집인 박일권의 『나그네』(1935)와 정호승의 『모밀꽃』(1939)이 나왔다. 이무영의 증언에 따르면 본명이 영택인 정호승은 조선문학사의 운영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6년 11월 민태규가 간행한 『낭만』은 제1집이 마지막 호가 되었다. 시 전문지를 표방한 점에서 『낭만』 제1집은 정식 시집은 아니다. 하지만 황석우가 편집, 발행한 『조선시단』 제5호가 사화집으로 구성되어 『청년시인백인집』(1929)이란 이름으로 간행된 사례를 고려하면, 『낭만』 제1집(1936)도 시집의 범주에서 다뤄도 무방할 듯싶다.

홍순열이 발행한 문예지 『풍림』은 1936년 12월 창간되어 통권 8호까지 나왔다. 풍림사에서는 윤곤강의 『대지』(1937), 오장환의 『성벽』(1937), 이찬의 『대망』(1937)이 간행되었는데, 이들 모두 해당 시인들의 첫 시집이란 점이 이채롭다. 특히 『성벽』은 미색의 판지를 표지로 사용했고, 앞표지 중앙의 사각형 틀 안에 '성벽'과 '오장환시집'을 음각하여 장정을 꾸몄으며, 본문 중에 이병현의 '꽃', '해변'과 김정환의 '밤' 등 판화 3점을 부착하여 호화롭게 제작되었다.

1937년 6월 창간되어 2호로 종간된 『시인춘추』의 발행인은 이인영이지만, 창간호의 「서시」와 본문의 마지막 글인 「감정의 표현」의 필자를 고려한다면, 실제 운영자는 고산 이해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시인춘추사에서는 이해문의 창작시집 『바다의 묘망』(1938)이 간행되었는데, 『시인춘추』 창간호에는 『바다의 묘망』 발행 예고가, 제2집에는 『바다의 묘망』 목차가 실려 있다. 한편 이해문은 요절한 이가종의 창작시집 『노림』(남창서관, 1941)의 발행을 주선하기도 했다.[5]

---

5 오영식/엄동섭. (2021). 한국 근현대 시집 100년. 서울: 소명출판.; 문학사상사편. (1975). 초간희귀 한국현대시 원본전집 1-50. 서울: 문학사상사.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편. (2014).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 보고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편. ; 엄동섭. (2014). 원본 진달내꽃 진달내 서지 연구. 서울: 소명출판. ; 하동호. (1987). 근대서지고유총. 서울: 탑출판사. ; 하동호. (1981). 한국근대문학의 서지연구. 서울: 깊은샘.

www.kci.go.kr

김정기가 발행한 시 전문지 『맥』은 1938년 6월 창간되어 통권 6호까지 나왔다. 6호까지 약 46명의 시인이 필진으로 참여했는데, 문학사에 이름을 올린 시인은 함윤수, 박남수, 윤곤강, 장만영, 김조규 정도이며, 대다수의 문인들은 지방에 거점을 두고 활동했다. 『맥』은 당시의 경성 중심의 문단에 흡수되지 않은 지방 문단의 중요한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맥사에서는 김해 지역의 의사이자 시작 활동을 병행한 김대봉의 『무심』(1938)이 발행되었다.

1938년 6월 창간된 종합잡지 『청색지』는 4호까지 간행되었다. 발행인 구본웅은 이상을 그린 〈친구의 초상〉과 『현해탄』(1938)의 장정가로 널리 알려진 서양화가이다. 그는 또한 구인회의 동인지 『시와 소설』(1936)의 편집 겸 발행인도 지냈다. 청색지사에서 발행된 창작 시집으로는 이하윤의 『물레방아』(1939), 김태오의 『초원』(1939), 유치환의 『청마시초』(1939), 김달진의 『청시』(1940) 등이 있다. 구본웅은 『물레방아』, 『초원』, 『청마시초』의 장정도 맡았다.

김연만이 발행인을 맡아 1939년 2월에 창간된 『문장』은 1930년대 문단을 대표하는 소설의 이태준, 시의 정지용, 시조의 이병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문장사에서 간행된 창작시집으로는 김사용의 『망향』(1939), 이병기의 『가람시조집』(1939), 정지용의 『백록담』(1941) 등이 있다. 또한 최재서는 인문사를 설립하여 『인문평론』을 발행하는 한편 자신이 편집한 번역시집 『해외서정시집』(1938)을 바롯하여 임학수의 『팔도풍물시집』(1938)과 『전선시집』(1939), 신석정의 『촛불』(1939), 장만영의 『축제』(1939) 등 창작시집을 출간했다.[6]

6. 주요 자가본 시집들

자가본이란 특정한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저자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펴낸 책을 지칭한다. 이 경우 판권에 발행소는 적지 않고 인쇄소만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단 조직이 성글었던 1920년대에는 자가본 시집이 출판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단 진입 시스템이 제도화되지 못한 채, 1930년대 들어 문단 진출 희망자가 크게 늘자 자가본 시집의 출판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자가본 시집의 출판이 문단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적절한 통로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

6 오영식/엄동섭. (2021). 한국 근현대 시집 100년. 서울: 소명출판.

www.kci.go.kr

1930~1940년대에 간행된 자가본 시집에는 유엽의 『님께서 나를 부르시니』(1931), 정영수의 『광야의 애상』(1932), 박귀송의 『애송시집』(1934), 백용주의 『초립』(1935), 백석의 『사슴』(1936), 김기림의 『기상도』(1936), 임학수의 『석류』(1937), 장만영의 『양』(1937), 노천명의 『산호림』(1938), 김동명의 『파초』(1938), 최경섭의 『풍경』(1938), 윤곤강의 『만가』(1938), 김광섭의 『동경』(1938), 최병량의 『능금』(1938), 박귀송의 『세계의 예언』(1940), 이기열의 『낙서』(1940), 오신혜의 『망양정』(1940), 박노춘의 『여정』(1940), 임춘길의 『화병』(1941), 김용호의 『향연』(1941), 이강수의 『남창집』(1943), 박일연의 『박일연시초』(1944) 등이 있다. 이 중 김동명의 『파초』와 윤곤강의 『만가』만 두 번째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저자들의 첫 시집들이다. 이들은 자가본 시집의 출판을 통해 문단에 진입한 것이다.

자가본 시집의 출판은 일본에서도 이루어졌다. 1930년대 중후반 무렵 일본 유학생들도 현지에서 자가본 시집을 출판하는 경우가 더러 생겨났다. 황순원의 『골동품』(1936), 장재성의 『말하는 침묵』(1936), 이용악의 『분수령』(1937)과 『낡은 집』(1938), 함윤수의 『앵무새』(1939), 엄태섭의 『여로』(1939), 박남수의 『초롱불』(1940)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 시집은 모두 한곳의 인쇄소, 즉 동경의 삼문사에서 인쇄되었다. 황순원의 『방가』(1934)도 발행소는 동경학생예술좌이지만 인쇄는 삼문사에서 했다. 이 삼문사의 책임자 최낙종은 최정희의 친척으로, 해방 이후 친일 전력이 있던 김동환을 대신하여 『삼천리』 속간호의 편집 겸 발행인을 맡았다.[7]

7. 결론

이 글에서는 다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결론으로 대신한다.

첫째, 근대 시집의 출판을 도맡았던 광익서관과 회동서관을 살펴보았다.

둘째, 일제강점기에 시집을 가장 많이 발행한 출판사는 한성도서주식회사와 박문서관을 다루었다. 두 출판사의 경우, 한성도서는 창작시집 19종을, 박문서관은 창작시집 10종과 번역시집 1종 등 총 11종을 펴냈다.

셋째, 문고본 시집을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 문고본 출판의 쌍벽을 이룬 출판사는 박문서관과 학예사이다. 박문서관에서 1939년부터 1943년까지 18책을 펴냈고, 해방 후 박문출

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편. (2014).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 보고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편.

www.kci.go.kr

판사에서 4책을 더 내어 박문문고의 총 권수는 22책이 되었다. 한편 학예사에서는 1939년부터 1941년까지 20책의 조선문고를 발간했다. 이밖에도 영창서관에서도 시집을 기획했던 것을 확인했다.

넷째, 시인이 운영한 출판사에서 발행된 시집을 살펴보았다. 시인이 출판사를 운영하며 시집을 출간한 사례는 김억의 매문사와 신문학사, 황석우의 조선시단사, 양주동의 문예공론사, 김동환의 삼천리사, 박용철의 시문학사, 오일도(오희병)의 시원사, 오장환의 남만서방 등이 있었다.

다섯째, 문예지 출판사에서 발행된 시집들을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방인근의 조선문단사, 이무영의 조선문학사, 민태규의 낭만사, 홍순렬의 풍림사, 이인영의 시인춘추사, 김정기의 맥사, 구본웅의 청색지사, 김연만의 문장사, 최재서의 인문사 등이었다.

여섯째, 주요 자가본 시집을 살펴보았다. 자가본이란 특정한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저자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펴낸 책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경로로도 시집이 간행되었다.

www.kci.go.kr

【References】

Oh, Young-sik & Eom, Dong-seop. (2021). 100 years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poetry collection. Seoul: Somyung.

Munhaksasangsa. (1975). Rare Korean Contemporary Poetry Original Collection 1-50. Seoul: Munhaksasangsa.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4). A survey report on the collection of modern literature materials in Korea.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Eom, Dong-seop. (2014). A study of the original jindalnae flower jindalnae bibliography. Seoul: Somyung.

Ha, Dong-ho. (1987). Modern Seoji Kindergarten. Seoul: Top Publishing Company.

Ha, Dong-ho. (1981). A bibliographic stud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Seoul: Deep Spring.

www.kci.go.kr

식민지시기 근대 시집의 출판 양상

엄동섭
창현고등학교 교장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이 글은 1921년부터 1950년 6월까지 출판된 시집(詩集)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행 연구에서 하동호 교수가 374종의 시집을 정리한 적이 있다. 이 작업은 고전시가집이나 외국어 표기 시집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몇몇 누락된 시집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하고, 선행 연구와 달리 근대 시집을 발행한 주요 출판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 이 글은 1921년부터 1950년 6월까지 출판된 시집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선행 연구에서 다룬 고전시가집이나 외국어 표기 시집을 제외하고, 식민지시기 근대 시집을 발행한 주요 출판사를 중심으로 400여 종의 시집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결 론 이 글을 통해서 근대 시집의 출판을 도맡았던 출판사, 일제강점기에 시집을 가장 많이 발행한 출판사, 문고본 시집의 발행 양상, 시인이 운영한 출판사에서 발행된 시집, 문예지 출판사에서 발행된 시집들, 주요 자가본 시집을 살펴보았다.

핵심어 일제강점기 간행 시집, 근대 시집, 일제강점기 시집 전문 출판사, 문고본 시집, 시인이 운영했던 출판사와 시집, 문예지 출판사에 발행된 시집, 자기 비용 발행 출판사

이 논문은 2024년 9월 20일에 투고 완료 되어,
2024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0월 15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www.kci.go.kr

www.kci.go.kr